

나눔터

2001 · 여름

제38호

2

이런 일을 합니다

3

이렇게 생각한다
「성매수」 대상 청소년, 형사처벌 논의에 대해

4

여기는 상담실
유아성폭력에 대한 부모의 대응

7

기획 II
상담소 발전 10년의 모습

10

기획 I
살맛나는 세상을 위한 폴잎들의 10년

12

오늘의 쟁점
데이트 성폭력 문제화하기



14

미디어 모니터
인생은 아름다워(2) 세계미디어운동센터 모니터팀



16

성문화하기
끝나지 않은 전쟁

17

상담소를 움직이는 사람들

18

Sisters 꼼꼼히보기

19

나눔터 게시판

20

살맛나는 세상을 위한 폴잎들의 시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1동 951-12 가람빌딩 5층 (135-860)

일반상담 · 열림터 02-529-4271~2

사무전화 02-576-7128, 576-5513~4 팩스 02-576-7127

사단
법인의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이런 일을 합니다



- 제4회 성교육 성상담 교사 연수
- 교사 대상 매체 비평교육
- 직장내 성희롱 강사 워크숍



- 교사 대상 영상제작 교육
- 열림터 집단상담
- 노조 활동가 대상 직장내 성희롱 워크숍



- 제조업 노동자 대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 쉼터 보호시설 관계자 간담회
- 대학내 성차별 성폭력 실태 및 대책에 대한 토론회
- 대학내 성차별적 성문화바꾸기 공모



- 제조업 노동자 대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및 상담원 교육
- 성폭력 가정폭력 연계망 구축사업: 서울시 구단 위 협의회 시범 운영 간담회(II)



- 대학내 성차별적 성문화바꾸기 공모작 전시회
- 제조업 노동자 대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가정폭력 성폭력 연계망 구축의 발전방향을 위한 토론회
- 상담, 쉼터 매뉴얼 제작 배포
- 피해자 부모 교육



- 한해 보내기

21세기 여성 미디어운동센터

2001년 여름방학을 맞아 21세기 여성미디어운동센터에서는 서울시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을 받아 중고등학교 교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사교육을 합니다.

1. 매체비평교육 : 2001년 7월 23일(월)~7월 27일(금)

포르노그래피가 남성과 여성,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알아보고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미디어수용자 교육을 합니다.

2. 영상제작교육 : 2001년 8월 6일(월)~8월 10일(금)

디지털 영상제작의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개인의 캠코더를 이용한 촬영 및 편집 실습을 통해 스스로 작품제작을 가능케 하여 보다 적극적인 미디어창출자를 양산해냅니다.

성평등교육국립문화센터

1. 2001년 초등학교 성평등 의식 및 성교육 연수

초등학생들에게 성평등 의식을 길러주고 올바른 성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대학생과 초등학교 성교육에 관심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2001년 초등학교 성평등 의식 및 성교육 연수'를 실시합니다. 소규모 인원(40명)을 대상으로 강의와 토론이 병행되어 진행됩니다.

- 일시: 7월 2일~6일
-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교육실

2. 제 4회 성교육·성상담 교사연수

청소년 성교육·성상담에 관심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 4회 성교육·성상담 교사연수를 실시합니다. 이번 연수는 특히 성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관점과 지식 습득을 중심으로 토론과 강의를 병행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시: 8월 13일~18일(공휴일 제외)
-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교육실

‘성매수’ 대상 청소년, 형사처벌 논의 이전에 보호처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명화 | '아해!' 청소년성문화센터장



한 국 성폭력 상담소, YMCA, YWC A 등 여성·청소년단체의 각고의 노력과 많은 시민들의 서명으로 제정하게 된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이 법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상업적인 성문화가 나이 어린 청소년의 성매매 사고 파는 문화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며 진통 끝에 내놓은 교육지책이었다. 그러나 가해자의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신상공개 내용 및 대상이 축소되어 초기 법제정의지가 과연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최근 발표된 검찰의 청소년 성매수자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기소된 피의자 중 6%만이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게 된 이유는 같은 범죄의 재범자들이기 때문이고 그나마 1심 형량이 징역6월~1년에 그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 현상의 특성상 단속되기도 쉽지 않았거나 재범이 되기는 더욱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대다수의 성매수자들은 법의 제재를 거의 받고 있지 않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법의 집행이 이렇할진대 성매수 대상 청소년을 형사처벌 하겠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청소년까지 처벌하자고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수궁이 가는 점이 없지는 않다. 경찰이나 검찰 일선 현장에서 생각하는 발상일 수 있다. 어떤 청소년들의 경우 상습적이며 심지어 이를 악용한 2차 범죄 뿐만 아니라 처벌을 받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파급효과도 크다는 것인데 이는 일부 청소년에게 국한된 경우라는 것이고 이 아이들에 대한 심층 분석없이 처벌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청소년 성매수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생각한다.

‘자발적’ 이고 ‘상습적’ 으로 성매매에 나선다는 청소년들은 누구인가? 안타깝게도 소위 ‘원조교제’에 대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 하루이들의 일도 아닌데 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오로지 한 여자가 수십여명의 남자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 성적이 상위권인 여학생도, 부유층자녀들도, 2:1로 유인 등등.. 선정적인 기사만을 다룰 뿐이다.

현장에서 보던대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가출을 했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오래 전부터 가정과 학교로부터 구조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졌던 아이들이 많다. 또한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 뿌리깊게 내재해 있는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순결강요 문화 속에서 성폭력을 당하고도 그 짐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아이들도 있다. ‘난 이미 버려진 몸이다’,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이미 버린 몸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거부하면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까? 평생 전과자로 낙인을 남기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두 번의 상처를 이들에게 안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기 더욱 힘들게 하는 조건이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이들에게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소년원송치 등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관점으로 분석해서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고 대책없는 귀가조치를 취하는데 있다. 문제는 이 아이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고 치료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선도보호시설과 상담소를 설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법문구일 뿐이고 사실은 어떠한 사회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루속히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형사처벌보다는 치료와 선도가 우선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비록 범법행위를 한 청소년이라 해도 그들을 영원한 문제아라기보다는 우리사회 자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

유아성폭력에 대한 부모의 대응

하은주 | 본 상담소 일반상담부 부장

유아 성폭력 사건은 아이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와 아이의 대질 신문 요구 등으로 인해서 성폭력 피해를 발견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기까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최근 이러한 현실에 몇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민사 재판부가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이 난 사건을 아이 진술을 대부분 인정하여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형사상 유죄가 입증 안된 사건에 대한 이례적인 판결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유아성추행 사건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 부모들이 가해자 처벌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푸른가족모임'이 2년전 발족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처럼 유아 성폭력 사건에서 부모의 역할은 피해의 조기발견에서부터 가해자 처벌, 아이 후유증 치료에까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모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 부모들은 당황하고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자책을 조절하지 못한채, 아이 돌보는 일에 몰두한다. 그러나, 부모자신이 입은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일은 아이를 돌보는 일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호에는 본 상담소에 접수된 유아성폭력 사례를 통해서 아이에게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부모들이 보이는 반응을 살펴보고 현명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유아성폭력 피해의 특성

유아성폭력의 경우 성추행 피해가 전체 상담의 약 85%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강간이 7~8%, 남성피해가 3.57%정도의 분포를 보인다. 피해자/가해자의 관계에서는 아이와 가깝게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72.86%를 차지하고 있어 주변인에 의한 피해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네사람에 의한 피해가 37.14%, 친척에 의한 피해가 18.57%, 유치원 등 학원내 관계자에 의한 피해가 17.14%를 차지한다. 또한, 전체의 25%가 미성년 가해자에 의한 피해라는 특징을 지닌다.

2. 피해자 부모들이 나타내는 일반적인 반응들

1) 아이 말이 사실일까요 유아 피해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들이 부모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 것을 아이에게 주지시키므로 목욕하는 과정이나 아이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부모에 의해 사실이 알려진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들은 자

신의 아이에게 일어난 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한다. 아이가 혹시 상상해서 하는 말이 아닐까,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아이 말이 사실일까 라고 생각하며 당황해 한다. 특히, 가해자가 가까운 친척이거나 친부일 때는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자신과 아이에게 일어난 일을 믿고 싶어하지 않는다.

햇님이 엄마는 얼마전 아이를 목욕시키는 중 아이가 자꾸 아프다고 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아이에게 자세히 물어보자 아이가 처음에는 어떤 아저씨가 막대기를 넣었다고 하더니 '거짓말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햇님이엄마는 너무 당황하여 아이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사실이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나쁜 어린이' 라고 하거나, '이야기하면 죽어버리겠다' 는 식의 협박을 한다. 이러한 협박성 말이 아니더라도 피해 과정에서 아이들은 심한 공포를 경험한다.

가해자가 친부이거나 가까운 친척일 경우, 아이들은 자신이 잘못해서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워하고 이러한 이유로 피해사실을 숨긴다. 부모들은 아이가 불안한 행동을 하거나, 퇴행 행동 관찰을 통해서 피해에 다가갈 수 있다.

2) 내 잘못이에요. 피해자 부모들은 아이를 보살피지 못한, 잠시 아이를 혼자 두게 한 자신을 원망하며 심각한 죄의식에 빠지기도 한다.

달님은 올해 6살이다. 조기에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달님이 엄마는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돌아오면 바로 영어학원에 아이를 보냈다. 어느날 달님이 엄마는 아이가 자꾸 남자성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아이에게 물어보았더니, 아이가 학원차 운전사 아저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달님이 엄마는 영어학원에 보낸 자신의 잘못이라며 심한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다.

3) 이사를 가야 할까요. 유아 성폭력 피해의 경우 동네사람에 의한 피해가 전체 피해의 37.14%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별님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층에 사는 중학생 오빠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별님이 엄마는 아이가 가해자를 만날까봐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으려 하고 집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자, 이사를 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

피해장소를 지나갈 때 마다 고개를 돌린다가, 일부러 먼길로 돌아가는 것은 아이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반응이다. 이러한 반응으로 인해 부모는 아이가 자꾸 피해 당시를 상기하는 것에 불안해하며 이사를 가야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고소를 할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이사를 고민하게 된다.

4)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경미한 수준의 처벌만 내려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 부모들은 경미한 처벌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기도 한다.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고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하겠다는 가해자 부모의 약속이 피해자와 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5) 후유증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피해자 부모들은 아이가 지금 보이는 불안 반응이 얼마나 지속될까, 후유증이 청소년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된다. 이런 걱정은 자연스러운 반응

이지만 아이들이 부모가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좋지않다. 성폭력 피해는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 또한 후유증에 대해 부모가 적절하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도와준다면 보다 빨리 극복될 수도 있다.

6) 앞으로 우리 아이 성교육은 어떻게 성폭력 피해 이후 부모들은 아이가 남자 성기 그림을 그린다가나 다른 것을 보고도 성기 같다고 하는 등의 반응에 당황한다. 뿐만 아니라, TV를 보면서 남녀의 키스장면이나 포옹장면이 나오면 고개를 돌린다거나, 유심히 보는 등의 반응에 당황한다.

그러나 이런 반응들은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일 수 있지만 아이가 성장과정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 부모들이 이런 반응에 당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며, 아이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아이의 발달에 맞는 성교육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3. 피해자 부모를 위한 몇 가지 조언

1) 아이의 말을 믿어주세요. 성폭력 피해를 아이가 꾸며서 이야기 하는 경우는 드물다. 만약 아이의 말이 믿기 힘들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 상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구체적인 표현과 감정이 배어 있을 것이다. 또한 아이들은 언어적 행동 이외에 비언어적으로 자신의 피해에 대해 표현한다. 아이들이 보이는 비언어적 행동, 예를 들어 몸짓, 그림, 말투에서 예전과 다른 점은 없는지 퇴행행동을 보이지 않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면, 아이의 피해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다.

2) 절대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이를 24시간 지키고 있을 수 없다. 성폭력 문제는 개인의

잘못, 책임이 아닌 전체 사회의 문제다. 성폭력 피해는 얼마든지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다.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가 생겼다고 생각할수록 죄의식과 죄책감이 가중될 수 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욱 보살펴 주는 것이 좋다.

3) 아이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우선 아이를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부모가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아니라, 목욕을 하는데 아프다고 하거나 눈으로 보았을때 빨개진 정도라고 해도 반드시 산부인과 검진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성기는 상처받기 쉽고 또 병균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거나 아이가 아무렇지 않다고 해도 산부인과에 다녀오는 것이 좋다. 이때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 산부인과에서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다. 만약 아이가 가해자와 격리된 상태이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면 고소가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이의 심리상태를 잘 보고 필요하다면 정신과 상담을 하는 것도 좋다.

4) 아이가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사건에 대해 상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차꾸 상기해서 아이에게 더 상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부모가 잘 이해해주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듣는 것은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 다만, 부모가 결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이가 느낄 수 있으면 계속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5) 아이와 상의하세요. 이사를 간다가나, 유치원을 옮기는 문제, 가해자를 처벌하는 문제 등을 부모입장에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반드시 아이와 상의하고 아이의 의견을 따라 함께 결정할 것을 권유한다. ☺

상담소 10년 발전의 모습

조 중 신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 시설장

1990년 여성학, 사회학, 인류학 등을 공부하면서 남녀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성폭력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느낀 몇몇 사람들이 모여 성폭력 피해여성을 돕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강간위기센터(가칭) 설립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여성운동의 실천의 장으로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을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10월부터 상담소 설립 준비위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상담소의 명칭을 「한국 성폭력 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로 결정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상담소 활동에 동참할 발기인을 모으고 이사진과 상담·법률·의료·연구 각 분야의 자문위원을 섭외 해 갔다. 이와 함께 기금마련을 위한 후원회원 모집, 호신용 호루라기 불펜제작 판매, 안내책자와 브로셔 마련, 홍보활동, 초기 상담원 교육실시 등의 기초작업을 해나갔다. 8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사업계획과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1991년 3월에 서초동 사무실로 옮기고 4월 13일 이화여대 중강당에서 개소식을 갖고 국내 최초의 성폭력 전문상담



기관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기 상담원교육에서 여성학, 상담학 강의와 실습을 거쳐 20명의 상담원이 참여하게 되었다.

성폭력상담소가 개소한다는 홍보가 나가자 개소도 하기전인 2월부터 어린적 피해의 후유증으로 한뼉한 사연에서부터 황급한 위기상담까지 피해상담이 쇄도하였

는데 각 사례마다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서 성폭력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아는 사람



의 피해가 70%이상인 점과 어린이 피해가 31.1%를 차지하고 있어 이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1월 세계성폭력추방주간을 기념하여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어린이 성폭행 추방을 위한 한마당>을 열어 실태와 원인분석, 사례발표 등의 토론회, 성폭력 예방극을 열었다.

1992년 상담소에서 지원해온 <친아버지 두 딸 강간사건>이 항소심에서 10년형이 선고되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 때문에 고소의 어려움이 컸고, 피해를 벗어나고자 가출한 이후에 마땅한 피신처가 없어 유흥업소로 유입되고마는 현실이 대

두되었고, 가해자의 정신감정까지 거쳐 '근친 성폭행 가해자는 정신병자일 것이라'는 통념을 뒤엎은 판례로 남았다. 이후 사회적으로 대두된 <김보은 김진관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에 앞장섰고 2



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친족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가

졌다. 피해경험이 성장과정, 생활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담원들은 '더좋은 상담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여 세미나, 상담사례 연구와 집단상담 워크샵, 외국자료 스타디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1993년 48시간 이내의 피해로 신속한 의료연계, 경찰연계가 필요한 위기상담을 지원하도록 성폭력위기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사회의 전폭적인 호응을 얻어 12월 13일에 성폭력 위기센터가 개소되었다. 대학생, 직장인으로 구성된 자킴이들이 24시간 상담을 받았고, 증거채취, 응급처치가 가능한 응급처치실이 설치되고 위촉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사회적인 제도를 시정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제반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성폭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상담소의 상담 통계를 통한 실태자료, 각종 자료집 등이 성폭력특별법의 필요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 그 동안의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이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는데 밑거름이 된 것이다. 성폭력특별법이 93년 9월 제정되고 94년 4월부터 시행되자 법적 문의를 청하는 상담이 쇄도하였고,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이 대두되어 직장내성희롱 상담이 폭주하였다. 상담소는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재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는 백서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지속적인 피해상황에 놓여있는 근친피해자,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앞으로의 현실적 삶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를 9월 14일 개소하였다. 열림터는 성폭력 피해자들 중 특히 친족성폭력 피해처럼 가해자와 같은 거주지나 이웃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과 자립을 위한 공간이다. 피해자의 67%가 친부에 의한 피해이다. 열림터에서는 개별상담, 집단상담, 병원연계, 고소 및 재판지원 등 총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적,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상담지원위원회가 94년 3월부터 결성되어 왔는데 95년부터는 보다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위해 상담지원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매주 토요일에 상담소에서 내담자와 직접 상담하는 <토요일 법률상담>을 개설하였다. 고소여부와 소송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상담지원방법과 한계를 협의하여 항고이유서, 진정서 작성, 재판참관, 상담일지나 송부 등의 지원 등을 하였다. 특히 과잉방어나, 정당방어의 논란을 일으킨 <홍여인 강간범 살해사건>을 지원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법적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1997년 6월 17일에는 국내 최초로 PC 통신에 IP를 개설하여 지금까지 통신을 통한 상담을 받고 있다. 상담뿐만 아니라 자료실을 통해 상담소에서 발간한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성폭력 관련 문제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하였다.

성폭력 문제의 보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담·법적·제도적 차원의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후속처리와 더 나아가 예방·교

육·연구 등의 작업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7월 1일 국내 최초로 성폭력문제연구소를 한국 성폭력상담소 부설기관으로 개소하였다. 성폭력문제연구소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체계의 개발과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제도·정책적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1998년 성평등적이고 자유로운 교육·문화 활동을 통해 인간중심적인 성문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평등교육문화센터를 개설하였다. 각 학교, 국 공립기관, 기업체, 군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육시설 종사자를 위한 성상담 성교육 워크샵,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워크샵, 중등 학교교사를 위한 성교육 워크샵을 실시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고 올바른 성문화를 형성해 나가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건강한 성문화가 정착된 미디어, 더 나아가 건강한 성문화가 정착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21세기 여성·미디어 운동센터를 개설하였다. 미디어가 공익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용자 교육 운동, 모니터 운동, 미디어 관련 법·제도 개선운동, 미디어 관련 쟁점에 대한 토론회 등을 통해 수용자의 주권이 민주적으로 행사되는 열린 미디어를 만들어 가고자 활동하고 있다.

1999년 6월 1일에는 홈페이지(www.sisters.or.kr)를 개설하였다. 상담소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에게 성폭력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로 2000년 2월부터 24시간 상담을 12시간 상담으로 축소하였는데, 전국에 50여 개의 상담소가 개소되어 활동하게 되

었음에도 성폭력피해상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상담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으로서 그 위상과 틀을 갖추게 되었다. 10년여간 3만여회를 상담하고 이 상담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하여 각 피해유형의 특성과 대책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홍보하여 왔으며 성폭력의 문제 뿐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모든 공식보도기관과 학회에서 상담소의 자료를 인용할 정도로 상담소의 공신력이 높아졌다. 올해 안에 그동안 성폭력운동의 역사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하는 계기로 삼고자 성폭력운동10년사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

상담소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남성중심적 성문화를 변화시키고 인간중심적 성문화 창출의 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문제를 현장에서 풀어가는 연구소,

이러한 결과물

을 효과적으

로 알려낼

수 있는 출판

사,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을 위한 프

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원 등이 한 몸을 이루는 종합센터를 세우고자 한다. 종합센터의 설립은 성에 관한 다양한 영역에서 성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관점으로 총체적 활동을 하는 터전이 될 것이다.

지금의 상담소가 있기까지는 상담원, 지킴이, 나눔이, 활동가, 후원회원, 자원위원, 이사진 등 많은 분들의 애정과 관심이 함께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사회의 올바른 성문화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의 희망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즐거운 도전이 되기를 바란다. ♣



살맛나는 세상을 위한 풀잎들의 10년

상담소 개소 10주년 기념식



박혜진 | 본 상담소 기획홍보부 부장

2001년 5월29일 오후6시30분부터 9시까지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조병두 국제홀에서 상담소 개소 10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한명숙 여성부 장관을 비롯 관련인사 및 자원활동가 등 지난 10년간 상담소를 다양한 모습으로 지원해 왔던 분들 약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이번 행사를 통해 10년간 상담소의 활동과 함께 우리나라 성폭력관련 사회환경의 변화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여 그간 상담소가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부각시키고 또한 상담소 활동에 다양한 모습으로 동참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축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정각 7시, 안필연 교수와 경기대생 3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퍼포먼스 “포효”의 축하공연 후 개그우먼 김미화 씨의 사회로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한명숙 여성부 장관의 축사가 식 처음을 장식했으며 김삼화 이사장과 최영애 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선배 여성운동가로서 이희호 여사를 비롯한 정은아 아나운서, 장필화 이대 여성학 교수,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총장 등 상담소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인사들의 축하영상메세지는 상담소 개소의 의의와 역할을 잘 드러내 주었다. 상담소 지킴이 소모임인 ‘노래도적’의 공연은 ‘당당히 소리쳐

손가락질해!’ 라는 곡명에서도 보여지듯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성추행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자는 노래로 지난 여성대회에서 입상한 노래이기도 했다. 식 중간에 지킴이 소모임인 ‘노래도적’의 공연은 흥겨운 곡과 노래말로 지루해지기 쉬운 기념식에 즐거움을 선사했다.

“성폭력추방운동상”, “아주 특별한 용기상”, “공로상”

이번 10주년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는 “성폭력추방운동상”과 “아주 특별한 용기상”이었다. 10주년을 기념해 새롭게 마련한 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담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신 여덟분에게 드린 공로상도 매우 뜻깊다 하겠다.

개소 10주년을 맞이하여 제정한 “성폭력추방운동상”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법·제도적인 개선을 이끌어 내어 성폭력추방에 크게 기여한 단체나 개인을 선정하여 기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관련 단체의 추천과 심사위원선정·심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의 당사자인 우조교가 선정되었다. 그는 여성으로서 성적인 피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은폐되어 온 성희롱 문제를 최초



로 문제제기하였으며 성희롱 문제로는 최초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6년이 넘는 법정투쟁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 내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 직장내 성희롱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또한 "아주 특별한 용기상" 이라는 새로운 상도 마련하였다. 이 상은 자신의 성폭력피해를 극복하고 나아가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에게 주는 상으로 상담소는 열림터의 내담자였으나 현재 상담부간사로 활동하는 김 상담원을 수상자로 정했다. 매우 밝은 모습으로 수상소감을 피력한 김 상담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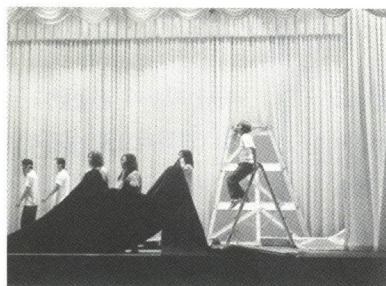
더불어 현재의 상담소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10년간 꾸준히 상담소 이사로 활동해 주신 문해란 녹십자 의료재단 이사장, 상담소 초기부터 법률자문위원으로 도움을 주셨고 토요법률상담을 있게 한 장본인인 조영향 판사, 의료자문위원이자 5년간 상담소 대표이사로서 수고해 주신 박금자 산부인과 원장, 상담원 교육을 비롯해 세미나 강의 및 각종 자료 제작에 많은 도움을 주신 임용택 카톨릭의대 산부인과 교수, 내담자들의 정신과적 치유 상담에 가장 많이 지원한 소은희 소아청소년 정신클리닉 원장, 3기 상담원으로 1993년부터 지금까지 상담 자원활동을 해오시고 성폭력을 주제로 박사학위 취득도 하신 남순열 경북대 교수, 2기 지킴이로 상담소자원 활동과 '노래도적' 소모임을 결성하여 오랫동안 노래공연으로 상담소 행사를 빛내준 박병현 여성연합간사, 1991년 1기 상담원을 시작으로 1995년 상담부장, 현재 열림터 시설장으로 10년간 상담소에서 상근하시고 계신 조중신 씨가 그 주인공들이다.

본 행사외에 행사장 로비에 상담소의 10년간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10장의 연도별 판넬 전시와 우리사회에 성폭력문제를 공론화시켜 인식변화와 법적적인 제도의 개선까지 이끌어낸 사건들을 '성폭력추방 운동사 10대 사건'으로 정리하여 전시하였다. 보는 이

로 하여금 상담소 개소 10주년 기념과 함께 성폭력 운동사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10대 사건은 ①성폭력 위기에 처한 여성이 취할 수 있는 정당한 자기 방어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변월수 사건 ②경찰이 다방여중업을 운간한 강정순 사건 ③공권력에 의한 여성인권유린을 폭로한 부천시 성고문 사건 ④어린이성폭력 피해 후유증을 극명하게 드러낸 김부남 사건 ⑤근친성폭력을 사회에 알린 김보은, 김진관 사건 ⑥성폭력특별법 제정 ⑦직장내 성희롱의 피해를 알리고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문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⑧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사업주에게 집단소송한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 ⑨장애인성폭력피해의 심각성과 성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강릉 K양 사건 ⑩군대내 성폭력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된 사단장 성추행 사건 등이다.



행사를 통해 기업이나 관계기관의 후원금 모금도 중요하지만 우리 상담소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바로 회원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회원 확대 방안

의 중요성이 보다 부각되지 않았나 싶다. 현재 EZE 재단의 지원도 끊긴 마당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방안은 회원의 확대이다. 이번 행사에 회원들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발판으로 회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상담소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상담소 활동가들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상담소가 이런 활동을 해왔구나 하는 새삼스런 깨달음을 통해 상담소 식구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샘솟은 것보다 더 큰 목표달성은 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기념식을 준비하면서 상담소 식구들 모두 고생을 했다. 당일 두 시간을 위해 두 달 가까운 시간을 투여했지만 결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데이트 성폭력

dating violence

문제화 하기

변혜정 | 본 상담소 부소장

2000년의 성폭력에 대한 상담통계(한국성폭력상담소 소식지 나눔터 37호, 2001)를 살펴보면 이는 사람에게 의한 성폭력이 75.75%이며 그 중 가해자와의 관계를 볼 때 데이트 상대가 9.9% (1749건 중에서 174건 차지)이며 피해자는 100%여성이다. 선, 부킹, 채팅 등의 이성간의 데이트를 목적으로 처음 만난 날 또는 만난 지 얼마 안된 이후 성폭력을 당하는 사례부터 지속된 데이트 관계 이후 피해 여성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강요받아서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사례까지 다양하다. 피해자의 연령도 15세에서부터 기혼여성까지 다양하며 많은 경우 데이트 성폭력 이후 스토킹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상담소에 신고하였다.

이러한 성폭력 사례들을 통칭 데이트 성폭력(dating violence) - 이성관계를 목적으로 데이트 관계 중에 피해자의 '성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성관계를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이라 이름 붙이는데 **(본 상담소도 데이트 강간을 문제화하면서 1992년 나눔터 2호에서 데이트 강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여타의 다른 성폭력과 달리 성폭력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는데 여러 지점에서 저항이 있다. 특히 청소년 사례나 지속적인 스토킹(사이버 스토킹 포함)처럼 물리적인 증거가 있기 어려운, '데이트'라는 관계가 명시적인 성인 사례들은 자신의 경험이 성폭력인지

아닌 지부터 혼동한다. 즉 자신은 '(성관계를)원하지 않았음에도 (결과적으로)성관계라고 인식'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 스스로도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름 붙이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창피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성폭력은 아니다라고 하는 맥락은 무엇인가? 왜 피해여성들은 일반적 성폭력과 달리 그것을 성폭력 피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들의 데이트 (성폭력) 경험은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났으며 어떤 상황인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성폭력을 당하게 되는(성관계를 하게 되는) 맥락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먼저 여성이 **'성적으로 원하지 않음'이란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과 많은 관계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은 '특별한 여성성'이 아니라면 먼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밝히는 여자가 되기 때문에 (그녀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성관계를 요구한 결과가 그렇지 않는 결과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성관계란 남성이 원해서 (사랑 내지 보답으로서 또는 결혼을 전제로 해서)여성이 응한다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미혼)여성이 먼저 원해서 주체가 되는 성관계는 드물기(이 부분은 사회적 통념과 현실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원하지 않음'이 성폭력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원하는 여성'이 있어야지 '원하지 않는 여

성'이 의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명 우리 사회의 (남성이 주체가 되는)성관계는 여성의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으면(확실한 동의를 의사표현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성폭력이라고 과잉 일반화할 수 있다. 즉 **성폭력은 '남성 중심적인 성이 지배적인 이 사회 남성들의 일반적인 성경험'인 것이다.** 동시에 (많은 경우 그렇고 그렇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데 또는 여성이 성폭력이라 문제화하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이 아니다, 성관계의 관행이 원래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또는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도 많기 때문에 성폭력은 어불성설이라고는 통념까지도 존재한다) 이는 지배담론이 피해여성들의 데이트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도 같다. 보통 때의 성관계가 원래 그러하네 유별나게 그 경험을 성폭력이라 이름 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성폭력을 문제화하기 이전에 성관계를 문제화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성별에 따른 섹슈알리티(성관계)의 구성의 차이, 남성 중심적인 성폭력/성관계의 구성요건, 이에 대한 통념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현행법이 갖고 있는 문제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인 '성폭력'이 성폭력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한 행위,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이라는 공통점(형식적으로는 합의를 끌어내고 있다.)이 있음에도 무엇이 성폭력이고 아니냐의 문제를 놓고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대립은 성별구도로 번지고 있다. 성폭력 사건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하느냐에 따라 진실이 거짓으로, 거짓이 진실로 될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성적언동'이란 분명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그것의 진실성은 의심받고 있다. 진실로 가해자(주변사람 포함하여)가 믿지 못할 뿐 아니라 (가해자야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 가해자의 이야기가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보다 진실처럼 믿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성폭력이란 자신이 놓여있는 위치나 경험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 남자와 여자이냐의 성별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를 중심으로 내가 누구의 입장에서 성폭력사건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인지되는 것이다.

성폭력은 해석의 문제이고 권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정받지 못하는)성폭력 피해자의 몸에 기억된 (언어화되지 않

은)고통의 문제이기도 하다.(**성폭력범죄의 기소율은 고소된 사건의 1/3이라는 통계가 있다. (형사정책연구원, 1992)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가 승소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고통이 따르지만 그래도 승소한 사건은 자신의 고통이 성폭력으로 명명도 받지 못한 상황에 비교하면 훨씬 낫다고 피해자들은 진술하고 있다.**) 이것은 가해자를 보복하기 위하여 갑자기 꾸며낸 거짓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이 새로운 해석에 의해 이름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것은 누구 말대로 피해자가 과거보다 예민해졌다는 것도 일정부분 사실이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성폭력 개념, 의미, 범주는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성폭력을 끝내자는 운동의 맥락에서 정치성과 역사성을 갖는다. 즉 피해자의 고통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석해서 끝낼 것인가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개념이다. 피해자의 시각에서 고통의 맥락을 언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폭력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언동'으로 추상화시켜서 정의하며 이 의미가 (피해자의 입장에서)어떻게 정치적으로 구성되어 있고/되어야 함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금 현재의 (법담론중심, 남성중심적으로 해석되는)성폭력개념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성폭력 의미형성과정은 곧 여성운동의 과정이며 이 운동을 통해 그 의미 또한 재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데이트 성폭력의 역할을 분석한다는 것은 성폭력이라는 행위 안에 녹아져 있는 남성과 여성의 섹슈알리티의 구성과 일상적인 성관계를 문제삼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데이트 공간을 문제화하는 사례를 통하여 여성의 행위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데이트 공간을 정치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유**

잠깐!! 이 글은 본인 논문의 문제의식을 나뉘터 독자와 공유하기 위하여 기고한 것입니다. 여러 여성들과 진지한 토론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정치화 할 수 있는 논변을 만들고 있지만 다른 여성들과도 진지하게 경험을 더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상담사례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준 상담소 상근자들과 백정선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적인 것은 정치적이다'라는 여성주의의 명제를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나누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newwoman@netian.com) 편지주세요.

인생은 아름다워

21세기미디어운동센터 모니터팀

- ◆ KBS 2TV 월화 드라마 21:50 ~ 22:50 방영
- ◆ 모니터 기간 : 2001. 5. 14 ~ 2001. 6. 19. (1회~12회)

■ 들어가며

이 드라마는 강원도의 폐광촌을 배경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주위환경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갈등을 주소재로 하고 있다. 카지노나 관광타운의 건설과 함께 폐광촌은 더이상 추억과 낭만이 깃든 정겨운 산골마을이 아니며, 단지 전국망을 가지고 호텔과 카지노를 지으며 돈을 벌려는 사람들과 그걸 저지하려는 사람들의 추악한 싸움터일 뿐이다. 돈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들, 그 속에서 사랑을 만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엉켜서 이 드라마는 멜로와 깡패 드라마의 경계를 위협스레 왔다갔다 한다.

■ 소재와 구성

강원도 태백이라는 배경은 참신하다. 요즘 수많은 트랜드 드라마에서 지방은 서울에 비해 주변적이고 모두들 서울과 부, 현대적인 이데올로기에 열광하는 듯 보이는데 반해 여기서 강원도 사북과 자연은 드라마 중심을 차지하고 그것은 서울에 비해 격하되지 않는다.

그러나 참신한 배경과 소재와는 달리 드라마는 희정-재민-미숙, 정우-수정-춘구의 삼각관계에 점점 비중을 실어주고 있는 듯 하다. 또한 그 갈등은 결국엔 계급적인 갈등에서 파생된 것으로 배경은 호텔과 카지노가 들어서 혼란스러운 강원도 태백이지만 내용은 흔한 트랜드 드라마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굳이 강원도를 배

경으로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다. 미숙과 희정의 뻔한 삼각관계, 물론 출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던지 하진 않지만 착한 희정과 비정상적인 성격의 미숙(희정에겐 악녀)의 갈등 구도, 수정의 불치병과 시한부인생 등등은 지극히 만화적이고 작위적인 구도가 아닐 수 없다.

■ 등장인물분석

(1) 여성 등장인물

극중 희정은 바다부터 배우라는 아버지의 지시로 아버지 호텔의 홍보실에 입사한다. 그러나 실제로 희정의 직장생활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도저히 직장인의 복장으로 보이지 않는 화려한 딱 붙는 옷에 근무태만, 호텔경영학을 전공했다지만 출근 첫날부터 언니를 앞세워 지각을 무마하고 주업무는 피아니스트인 언니를 섭외하는 것이다. 물론 언니를 섭외하는 모습도 순전히 애교와 억지로 일관한다. 출퇴근도 제멋대로이고, 진지하게 일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다. 그리고 언제나 희정 옆에 붙어있는 여비서의 존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잣집 딸의 나약함을 보여주며, 희정의 여성스러움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 준다.

미숙 역시 호텔 프론트에서 일을 하지만 호텔 식당에서 희정에게 심한 말로 소리를 지른다거나 근무시간에 희정을

불러내 험박한다든지, 재민을 만나러 근무중에 나오기가 일쑤이다. 그리고 미숙이 나오는 장면에서 언제나 카메라의 시선은 늘씬한 미숙의 다리를 클로즈업하면서 위로 올라간다.

희정과 미숙의 관계도 상당히 어색하다. 희정과 미숙이 대조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연기자의 자질부족인지 몰라도 연기가 주변인물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튀며, 등장인물 자체도 지나치게 순정만화적이라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미숙이 희정과 재민이 함께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흥분해서 격한 언동을 남발하는 모습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즉, 여성은 히스테릭하고 과민하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묘사됨으로써 재민이나 다른 남성들에 비해 열등하게 비친다.

또한 거칠고 선머슴 같아 희정에 비해 여성미가 떨어지는 미숙과 그런 미숙에게 끊임없이 사과하고, 기죽은 듯한 자세를 취하는 희정, 이 둘 사이에 위치한 재민의 삼각구도로 예쁘고 애교있는 여자와 그렇지 못한 여자의 분할을 시도하고, 선택권은 남성에게 있다 즉 “외모와 성격은 비례한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식의 고정관념을 극대화하고 있다.

미숙의 언니 미영은 전형적인 현모양처형으로 지나치게 순종적이고 조용하게 묘사된다. 심지어 자전거를 탈 때도 언제나 치마만을 입으며, 사랑에 있어서도 소극적이고 정우를 멀리서 바라보거나 밥이나 빨래를 몰래 해 줌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거부장적 여인상이다. 드라마에서 가장 평면적이고 답답한 여성 캐릭터다.

물론 드라마의 초점이 극중 여성들의 직장생활이나 다양한 여성상을 보여주기보다는 인물간의 갈등관계, 연애관계에 맞춰진 트렌디 드라마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이 나오고 이를 가능한 현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중요하기에(그 영향성의 측면에서)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부자연스럽다. 여성들은 연애 이외에는 관심이 없고, 한심하고 멍청하게 그려진다. 드라마는 시청자로 하여금 현실과 동일시하게 하고 드라마 속의 매력적인 여성이나 남성

의 모습을 모방하고자 하는 심리가 은연중에 생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왜곡한 표현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2) 남성 등장인물

정우를 제외하고는 드라마 속의 남성 인물들은 모두 폭력과 밀접히 관계하고 있다. 재민은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바로 카센터에 취직이 되며, 그가 싸움을 잘하고 정의롭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는 행동거지가 거칠고 처음 본 희정에게 반말을 하는 등 그녀를 무시하지만, 그 또한 남자다움이라는 명목으로 이해된다. 또한 재민의 남자다움은 폭력성에서 연유하여 그의 폭력은 미화되고 도망간 엄마에 대한 이쁨(모성의 결핍)은 그의 폭력을 정당화한다. 한 예로 병든 광부의 자녀인 꼬마 지숙과 지철 남매를 위해 싸우는 모습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 줌으로써 폭력의 정의로움을 부각시킨다.

오춘구 역시 실제로는 잔인하고 야비한 깡패인데도 이성적이고 멋있는 모습만 부각된다. 오춘구가 다른 조직에게서 이권을 뺏기 위해 그 조직의 보스를 크레인에 매다는 모습이나 은어를 사용하는 모습, 빈번한 재민의 싸움 장면, 재민이 피투성이가 되는 모습 등은 그 폭력성 면에서 도저히 그 시간대에 지상파에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 폭력을 철저히 배제한 채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겠다는 기획의도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 같다.

■ 나가며

지방의 마을 배경으로 나름대로는 참신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는 평범한 삼각관계와 연애담에 빠져 버리고 말았다. 거기에 자극적인 폭력묘사까지 서슴없이 사용해 드라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퇴색시키는 모습까지 보였고, 주인공들에 대한 통속적인 캐릭터화는 너무나도 빈한 문제를 남기고 있음을 각인시킨다. ☹

끝나지 않은 전쟁

- 제 3회 여성영화제 쟁점파트의 영화들을 관람하고

안수진 | 본 상담소 정보사업부 간사

만은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시키듯, 어린시절 나 역시 코스타 가브리스 감독의 '뮤직박스'를 보면서 '만약 내가 주인공 제시카 랭처럼 아버지가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실제로 내 아버지가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다는 것을 까맣게 망각하고 말이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 나는 여성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막연히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여성의 인권유린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너무나 감이 잡히지 않는 주제라 한동안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4월에 있었던 3회 여성영화제의 쟁점파트에 있던 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 5편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했다.

'사망통지서'는 베트남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미국 여성(감독 자신)이 베트남을 찾아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베트남 여성들을 만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이 영화 중에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베트남인들이 그 전쟁을 'American war'라고 부른다는 점이었다. 분명히 같은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각기 다른 목적으로 전쟁을 했으며, 그 과정 중에서 다른 경험을 했고, 또 전쟁이 미친 영향 역시 달랐기 때문에 미국은 '베트남 전쟁' 우리나라는 '월남전쟁' 그리고 베트남은 '미국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화 속 여성들도 전쟁에 의해 남편을 잃고 인생의 질곡에 빠졌다는 점에서 전쟁이 지나간 지금은 국가와 이념을 초월한 '자매애'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전쟁이 일어난 제3세계 여성과 초강대국의 미국 여성은 결코 동일한 전쟁의 경험선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동일한 시대에 전쟁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개개인이 어떠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또 다른 작품들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급류 속의 요정'과 '어둠의 시간'이다. 두 영화 모두 실제 인물

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는데 '어둠의 시간'은 수용소에 끌려가 전쟁의 고통을 몸으로 체험한 유대인 여성이 주인공이며, '급류 속의 요정'은 전쟁에서 멀쩡히 떨어져 나치에 암묵적인 지지를 하면서 살아간 독일여성에 대한 다큐이다. 두 영화 중에서 특히 '급류 속의 요정'이 내 관심을 끌었는데 그 이유는 이 영화가 2차 대전의 주범국이자 유대인 학살을 자행했던 독일에서, 그것도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 그 후세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 때문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영화가 - 알레만 감독이 자신의 할머니를 인터뷰함으로써 - 독일의 부끄러운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자신에 대한 성찰 없이는 인권을 논할 수도, 사회를 비판할 수도, 역사를 바라볼 수도 없다는 신념을 아주 교과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바로 이 '급류 속의 요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알레만 감독의 할머니는 전쟁이나 유대인 탄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않았으며, 더구나 영화 '뮤직박스'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아버지처럼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다. 다만 우리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늘상 불의를 보면서도 스쳐 지나가듯 나치 시대의 독일인 역시 그것을 방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나치를 옹호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레만 감독은 할머니가 침묵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뷰 도중 주저앉아 한없이 울고 있었다. 마치 '뮤직박스'의 여주인공이 아버지의 학살 사실을 알게되었을 때처럼 말이다. 그 영화를 보았던 누군가는 어쩌면 알레만 감독의 유난스러운 감수성이라고 코웃음을 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이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체 한 개인이 어떻게 무언가를 할 수 있겠냐며 쓴웃음을 지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번 여성영화제에 출품되었던 '사망통지서'나 '어둠의 시간'을 보고도, 혹은 우리나라 변영주 감독의 '숨결'과 같은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그 무서운 침묵으로, 또 말없는 동조로 인해서 죽어간 사람들과 죽음보다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이다. 나 역

시 한때는 우리 아버지가 비록 베트남에 참전했지만 한편의 교전도 치루지 않은 장교였다는 이유로 내 자신을 위안했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눈가림이었을 뿐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여성들의 인권유린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하는 나는 이제 알레만 감독의 눈물의 의미를 알 것만 같다.

숨 가쁘던 여성영화제 자원활동을 끝내고 용기를 내어 베트남어를 강좌를 배우러 갔다. 그곳에서 나는 내게

언성을 높이는 베트남 참전 군인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나를 비웃는 남자들을 만났다. 어학강좌를 포기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꾸 눈물이 났다. 그리고 나는 아직 졸업 논문 준비에 대해 묻는 가족들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였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국전', '베트남전', '월남전' - 그 명명할 수 없는 전쟁은 이미 끝났지만, 여전히 나는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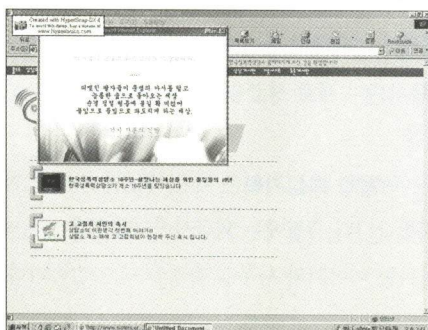
[상담소를 움직이는 사람들]

자원활동가 모임을 소개합니다

사이버나눔이 “마우스의 힘!”

현재 백정선, 김은경 두명의 사이버나눔이가 성폭력과 여성문제를 다룬 외국의 글을 번역하여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홈페이지의 특집기획기사를 만들기 위한 번역에도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덕분에 메일링리스트가 활기를 얻어가고 있지요.

새로 두분의 나눔이가 더 활동을 준비하고 계시니, 갑절이나 풍성해진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겠네요. 번역자원활동가 외에도, 메일링리스트를 기술적으로 지원해주시는 김익규씨와 홈페이지 디자인, 플래시에니메이션 제작을 해주시는 김혜정 씨도 소중한 사이버자원활동가들입니다.



모순을 저항하고 진실을 고집하자

21세기미디어운동센터 모니터팀은 실무간사를 포함한 총 4명입니다. 모두 20대 초반의 남녀대학생이며 페미니즘 모니터를 통해 여성운동에 일조하고 좀더 나은 TV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일념에 불타올라 모니터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 팀을 꾸리기 시작해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KBS 2TV)와 “결혼의 법칙”(MBC)을 가열차게 비판해왔으며 7월부터는 방송 3사의 연예오락프로그램을 모니터 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꼼꼼히 들여다보기

김영정 | 본 상담소 정보사업부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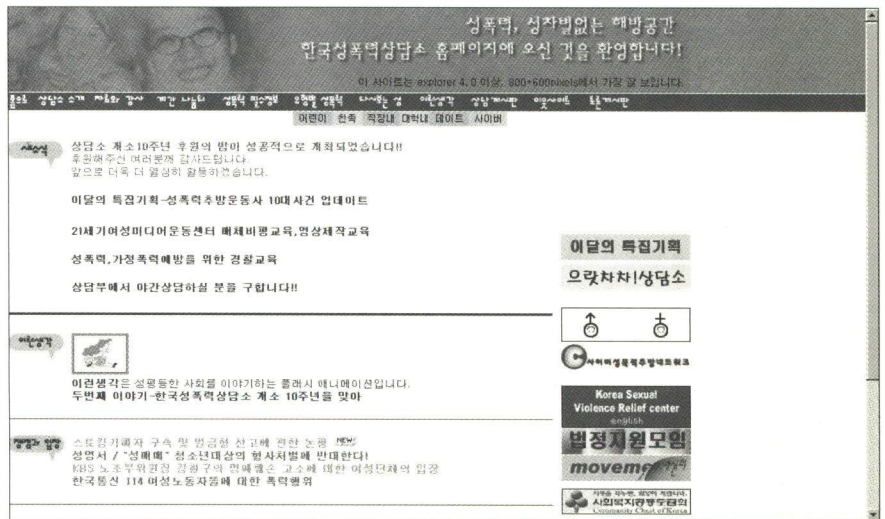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가 지난 5월에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새 홈페이지의 구석구석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기본메뉴는 **상담소 소개**입니다. 여기에는 '설립취지'와 '하는 일', 그리고 '해은 일'이라는 하위메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에는 상담소 활동내용과 함께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상담통계도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메뉴는 **자료와 강사**이구요, 상담소 발간자료가 간단한 설명과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계간 나눔터메뉴는 나눔터의 주요기사 몇개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필수정보'는 말 그대로 성폭력에 관한 필수정보들을 모아놓은 메뉴입니다. '성폭력이란', '잘못된 통념', '피해자권리', '피해후유증', '대응방법', '도움기관', '법률정보', '성폭력관련 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명별 성폭력은 '어린이', '친족', '직장내', '대학내', '데이트',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는 성**은 '문화비평', '테스트', '성에 관한 글모음'이 들어있는 메뉴로, 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아 놓은 곳입니다. 특히 '문화비평'에는 현재 한달에 두 번씩 영화비평이 실리고 있고,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 대한 비평글이 실릴 예정입니다.



이런 생각은 성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플래시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현재 제1탄 '고정희시인의 시'와 제2탄 '상담소 개소 10주년을 맞아'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원활동가 김혜정씨가 미국에서 돌아오시는대로 계속됩니다.

이번 개편과 함께 기존 자유게시판이 문을 닫고 '상담 게시판'과 **토론게시판**이 새로 생겼습니다. **상담게시판**은 성폭력 피해를 온라인으로 상담하는 곳으로, 한달동안 100건 이상의 상담글이 올라왔습니다.

기본 메뉴 외에도 '이달의 특집기획'과 '으랏차차!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달의 특집기획**은 매달 새로운 주제의 기획정보코너로, 지난 5월에는 사이버성폭력을, 6월에는 성폭력추방운동사 10대사건을 다뤘습니다. 7월에는 외국사이트탐방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으랏차차/상담소**는 상담소 후원방법과 함께 상담소 식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와 사무실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상담소 관련 새소식과 성명서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곳, 홈페이지www.sisters.or.kr 에 자주 들러주세요! ☺

상담소(열린터)에 물품을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부인회, 사랑의 친구들, 유한김벌리, 이순례, 이순옥, 조현임, 최영애, 하은주, 홍기선

새로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중현, 우현주, 윤남희, 이락현, 이상만, 이승룡, 이지원, 임태식, 홍자영

1월부터 3월까지 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원 강남식 강정옥 고순례 구나은 권혁진 김강자 김미경 김미숙 김민정 김영정 김윤경 김은희 김정희 김종구 김준호 김지혜 김현란 김현식 김혜원 노미순 류재경 문선경 문효진 민응기 박혜진 박귀자 박미라 박신옥 박윤숙 박희경 변인희 변혜정 서민자 신은주 심수희 오길향 오숙자 오숙희 오현숙 오희옥 우안녕 유은주 윤용미 윤정희 윤지원 윤지희 이경룡 이경미 이경애 이금형 이명선 이백수 이상만 이소진 이순례 이영분 이윤상 이효숙 임민희 임순영 임종은 임종인 장연집 장윤경 전석호 정남운 정대현 정성광 정옥분 조중신 조정현 지인순 최동석 최영애 최용득 하은주 한상희 홍은정

1월부터 3월까지 후원회비를 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미정 고정남 곽은하 구길자 구민지 김경희 김미경 김미영 김세중 김소명 김순형 김영애 김옥선 김은정 김일륜 김정순 김정신 김현정 김혜숙 김화영 노혜정 박미향 박선희 박순주 박윤희 박준규 박진숙 배은경 서천석 설연자 송성에 송인희 신동한 심화란 오은화 원혜정 육향순 유숙영 이선이 이윤미 이은정 이재인 이정아 이주희 이푸른메 이현주 이해경 임자영 전경림 정경란 정교화 조소연 조정자 주명희 주서현 차재순 최말순 최옥경 최정운 최지녀 홍성복 홍숙기

sister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세요!

상담소 내부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여성주의의 더듬이가 포착해낸 여러 가지 얘깃거리들, 특별한 경험담, 알고 싶은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메일링리스트! 행사, 구인 등 상담소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지요. 메일링리스트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두 분의 사이버나눔이가 매주 외국사이트의 글을 번역해서 올려주고 있고요, 또 두 분의 나눔이가 준비중이십니다. 가입을 원하시면 feminfo@thrunet.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단, 회원, 후원회원, 자문위원, 전현직 상근활동가, 자원활동가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권에 대한 유린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상담, 열린터 : (02)529-4271~2



본 상담소 심벌은 여성을 나타내는 우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의 비스듬한 다리모양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벌의 색깔은 '여성'과 '자매'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살맛나는 세상을 위한

풀잎들의 시편

- 故 고정희 -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음은
 해와 달이 더 이상 자매이지 못하고
 별들마저 운행을 멈춘 그곳
 끝내는 강물이 통곡으로 흐르는 그곳
 즈문 가람 모래밭에
 무참하게 유린당한 자매들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음은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을 겁탈하고
 어린이가 어른에게 강간당한 그곳
 굶주린 악마들의 오두막에서
 양갈보 통갈보가 태어나는 그곳
 인도땀을 쓴 사자들의 도성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딸들의 비명을 듣기 때문입니다

아아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있음은
 언제부턴가 팔려가는 신체의 냉혹한 피눈물이
 죄없는 여자들의 차지가 되고
 언제부턴가 전쟁과 평화의 골칫은 어둠이
 여자들의 운명으로 둔갑하기 때문입니다

일지리를 찾아나선 여자가 어느날
 쥐도 새도 모르게 거리에서 사라집니다
 햇빛 쏟아지는 골목에서
 일나간 어머니를 기다리며 뛰놀던 아이가 어느날
 입을 틀어막힌 채
 사나운 독수리 발톱에 채여 어딘가로 사라집니다
 상사의 수족처럼 일하던 여성이
 어느날 갑자기 비탄어린 사표를 쓰고
 야업 잔업 끝내고 귀가하던 딸들이
 그 어느 날
 광란하는 밤거리의 야수에 붙잡혀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당하고 피흘리고 숨을 거둡니다

의지했던 사촌이
 민었던 인척이
 혈육인 아버지가
 어느날 갑자기 악령으로 변신하여
 양가슴 젖무덤 눌러드릴 때
 칼날보다 무서운 강요된 침묵만이
 아주 뻔뻔스럽게 「아! 대한민국! 무궁화로 피고 집니다
 뼈속 깊은 수모와 굴욕의 고통이
 딸들의 생애에 중자부를 찍습니다

누가 그 치욕을 모른다 말하리까
 누가 그 공포를 모른다 외면하리까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 있으니,
 동쪽에서 일하던 어머니들 달려오고
 서쪽에서 일하던 자매들이 달려오고
 시방세계 여자남자 울울히 달려와
 우리가 여기 오늘 터를 닦아 한집을 세우니
 우리는 이 집을 살림의 집이라 이릅니다
 우리는 이 집을 위로의 집이라 이릅니다
 우리는 이 집을 해방의 집이라 이릅니다

피맺힌 팔자들이 운명의 가시를 탈고
 늠름한 숲으로 돌아오는 세상
 손결 정결 형틀에 불길 확 끼었어
 풀잎으로 풀잎으로 파도치게 하는 세상

각자 자존의 깃발
 각자 목숨의 깃발
 창궁 끝안테까지 나누끼는 세상

그런 살맛나는 세상을 위하여
 새로 태어나는 딸의 머리 위에
 축복의 향유를 붓고
 새로 출발하는 신부의 발걸음에
 자유의 꽃다발 평등의 꽃다발을 바치는
 그런 살맛나는 세상으로 가기 위하여

살맛나는 사람 자매들이여
 그대들 바로 여기 터를 닦았구나
 살맛나는 사람 동지여
 우리가 바로 여기 집을 신축했구나

우리 서로 짝지민 이 동아리 따뜻하여라
 우리 서로 떠받치는 이 어깨동무 든든하여라
 빙벽을 허무는 강강수월래
 우리들의 두 발로 우리 땅에 입맞춤하는 강강수월래 으쓱, 으쓱하여라

우리 슬기, 우리 기상으로 다진 이 터에서
 맺힌 한 풀어주고 고통을 싸매주는 이 부활의 터에서
 살맛나는 집이 나란히 나란히
 살맛나는 풀잎들이 나란히 나란히
 지평선을 이루고 징소리 깃드리라
 어린 딸들이 춤추고 맘껏 뛰노리라

아아 평화를 꿈꾸는 우리들 가슴마다
 마음 가득 차오르는 여백의 고요함이여
 그 창궁 아슬히 솟은 성화대에
 우리들 못다한 사랑의 불꽃을 당기나니
 다함없는 생명의 기쁨을 못나니